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재정지원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 2월 2일까지 총 6개 사업 부문 신청 · 접수... 21일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전북도가 18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16일간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1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 부문이다.

도는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 유튜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 목적으로 영업활동 수행하

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공모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총 5개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대상으로,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1인당 182만원의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대상으로,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은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교체·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5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분야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이며, 기업당 1~2명의 인건비의 일부(2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18만3,000원/1인당)를 최대 4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는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면 된다.

인프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은 시·군 선정 후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들을 발굴·육성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도내 전역에서

자부담 9만6000원 납부하면 연간 48만원 상당 농산물 공급

전북도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해 전주, 군산, 익산, 순창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자부담 9만6,000원을 납부하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산모들이다.

신청기간은 2월부터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mall.com)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유기농식품, 무항생제 축산물 등 임산부 건강증진에 유익한 제품들로 구성된다.

전북도는 올해 꾸러미를 공급할 업체 4곳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했고, 우수하고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기에 임산부들의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2020년에 4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순창)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임산부들의 의견을 올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소포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했다.

임산부가 쇼핑몰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임산부 사실확인 및 영양플러스 등 유사 사업 중복 여부를 점검한 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임산부들이 선호하는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미역과, 자녀의 이유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농식품(요거트, 과일즙 등)을 꾸러미에 포함해 임산부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병원회, 코로나19 감염제로 솔선수범 캠페인

소속 32개 의료기관 종사자 SNS 등 활용 홍보 동참키로

전북도 병원회가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과 감염제로 솔선수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도내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함께, 동절기 지속적인 환자 증가 우려에 따라 현장의 방역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전북도 병원회 소속 32개 의료기관은 선언문과 감염제로 솔선수범 캠페인 문구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 후 SNS와 원내 게시판 등 대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전북도 병원회의 실천 선언문과 캠페인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에 참여할 수 있는 대대적인 참여형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도 출연기관, 공공기관, 민간사회 단체 등 모든 분야의 참여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턱가래로 길에 쌓인 눈 치우는 시민들'

전북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8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인근에 눈이 가득 쌓여 있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전북도, 1750억원 규모... 해당 시·군 농림수산물 관련 부서에 신청

전북도는 농림수산물 분야 생산·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농업법인 포함)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1,750억원 규모의 2021 '농림수산물 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기금 신청은 농림수산업 및 농식품 가공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물 가공설비사업 ▲농림수산물 산지수매·저장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사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농어촌 귀농인 관련 사업 등이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자금이 개인 최대 1억원, 법인 최대 3억원이고,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5억원, 법인 최대 20억원이다.

지원 금리는 연 1~2%이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1년간 무이자, 그 이후에는 1% 금리를 적용한다.

농림수산물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군의 농림수산물 관련 부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농림수산물 발전기금 지원규모는 141건 306억원으로 2019년도 74건 153억원 대비 두 배 정도 대폭 증가했다.

지원분야는 축산 77건에 89억 원, 농산 46건에 177억 원, 수산 12건에 28억 원, 식품 6건에 12억원 등이다.

융도는 영농자재, 사료 구입 등이 114건(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수매저장 18건(13%), 시설 확충 8건(6%)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33건(29%), 60대 31건(28%)으로 57%이상을 차지했으며, 20~30대 청년 농업인도 17건(15%)이나 지원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 농생명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청년 농업인과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금이 필요한 농어업 및 농업법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20-111호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동 번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관계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중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공고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립법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위 치(소재지)	지목	기수	비고
전라북도 정읍시 용동면 비룡리 산17-2일원	임야	2기	(추정기수)
2. 개장사유: 전봉준장군 추경모 발굴에 따른 유골 및 부장품 등 정밀분석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관립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가. 안치장소: 서남권 추모공원(전북 정읍시 감곡면 정읍북로 1850)
 - 나. 안치방법: 화장 후 봉안당 안치
 - 다. 안치기간: 10년
6. 신고 처: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동학선양팀 ☎ 063-539-5433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분묘에 부착된 분묘번호 및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계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위의 분묘 외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정 읍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3-9700 www.jjmaeil.com